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채 규 만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공감능력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201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현 미 나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공감능력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채 규 만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현 미 나

인 준 서

현미나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공감능력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가정하고 이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위치한 기혼남녀 398명이었으며, 성인애착 척도(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Scales: ECRS), 결혼만족도 척도(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MSI), 공감능력 척도, 정서조절곤란 척도(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Scale: DERS)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변인의 상관분석 결과, 기혼남성의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은 결혼만족도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었고, 기혼여성은 애착회피만이 결혼만족도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또한 공감능력은 결혼만족도와 정적상관이, 정서조절곤란은 부적상관이 있었다. 둘째, 집단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t 검증을 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정서조절곤란이 더 높았고, 결혼만족도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셋째,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기혼남성에서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혼여성에서는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성인애착, 결혼만족도, 공감능력, 정서조절곤란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

II. 이론적 배경

1. 결혼만족도의 개념	7
2. 부부관계에서 성인애착의 이론적 관점	8
1) 애착과 내적 작동모델	8
2) 성인애착의 개념과 유형	10
3)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11
3. 공감능력	13
1) 공감의 개념	13
2) 공감의 구성요소	14
3) 성인애착과 공감능력의 관계	16
4) 공감능력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18
4. 정서조절곤란	19
1) 정서조절의 개념	19
2) 애착과 정서조절의 관계	21
3) 정서조절곤란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23

III. 연구 문제 및 가설	25
-----------------------	----

IV.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27
2. 측정도구	29
1) 성인애착 척도	29
2) 결혼만족도 척도	30
3) 공감능력 척도	31
4) 정서조절곤란 척도	32
3. 자료분석	34
V. 결과	
1. 주요 변인들에서의 성별 비교	35
2.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36
3.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공감능력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38
1)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39
2)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41
VI. 논의	45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부 록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7
<표 2> 성인애착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30
<표 3> 공감능력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32
<표 4> 정서조절곤란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33
<표 5>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차이	35
<표 6> 남성의 성인애착(애착회피, 애착불안), 공감능력, 정서조절곤란, 결혼만족도의 상관관계	37
<표 7> 여성의 성인애착(애착회피, 애착불안), 공감능력, 정서조절곤란, 결혼만족도의 상관관계	37
<표 8> 남성의 애착회피와 결혼만족도에 대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	40
<표 9> 여성의 애착회피와 결혼만족도에 대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	40
<표 10> 남성의 애착회피와 결혼만족도에 대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41
<표 11> 여성의 애착회피와 결혼만족도에 대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42
<표 12> 남성의 애착불안과 결혼만족도에 대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44

그림 목 차

<그림 1> 공감능력의 매개모형	26
<그림 2> 정서조절곤란의 매개모형	2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부부관계는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란 두 명의 성인이 자발적으로 맺는 비혈연관계로서 매우 밀접하고 지속성 있는 관계이며, 대개 부부관계는 가족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정현숙, 유계숙, 2001). 각자 성장배경이 다른 두 사람이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며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불화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부부갈등이 누적되다보면 결국 별거나 이혼과 같은 가족의 해체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이혼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이미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만 11만 6천 5백쌍이 이혼하였고, 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인 조이혼율은 2.4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15년 전인 1993년에 이혼건수가 5만 9천건이고, 조이혼율이 1.3인 것과 비교할 때 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으며,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혼 현황을 연령과 동거기간 별로 살펴 보았을 때, 5년 미만의 동거부부가 차지하는 구성비는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조기 이혼'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고, 50대 이상 부부의 이혼, 이른바 '황혼이혼'은 2005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마찬가지로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의 이혼도 전체 이혼 중 23.1%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통계청, 2009).

이혼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는 개인

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혼은 당사자인 두 사람에게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가정의 해체로 이어져 그 자녀들에게도 부적응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 실제로, 보건복지가족부(2008)가 발표한 2007년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조사에 따르면, 쉼터 이용 청소년의 대다수가 해체 가족 출신이고, 가출 이유도 부모간의 불화(15.9%), 부모의 폭행(15.2%) 등의 가족적 요인(63.0%)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09)이 발표한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에서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을 분석한 결과, 약 50%가 이혼, 가출, 별거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구였다. 게다가 이는 전체 가구 중 한부모 가정의 비율이 적은 것을 고려하면, 모·부자 가정과 같은 해체 가정의 아동학대 발생률은 상대적으로 더욱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혼은 이와 같이 가족의 해체에 따른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게 되므로 막대한 사회 간접비용을 지출하게 만드는 사회문제로 이어진다. 또한 이혼 가정이 아닐지라도 별거로 인한 한부모 가정, 혹은 부부가 지속적인 불화와 갈등이 있는 가정의 경우 역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적응과 발달을 저해한다(송은하, 2004; 이훈구, 2001; Cummings & Davies, 1994). 따라서 부부 관계에서의 갈등과 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연구와 심리치료적 개입이 높게 요구된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를 보면 1980년대 중반까지 증가하던 이혼율이 최근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부부간의 적응 증진과 이혼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와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예방 조치의 효과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권정혜, 채규만, 2000; Jacobson & Addis, 1993). 따라서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이혼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부부상담 및 치료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혼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자들은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은 이혼이

나 별거를 하고 싶은 동기를 유발하고(이경성, 2001), 이혼의 가장 큰 예측 요인 중의 하나가 결혼불만족이라는 점을 일관성 있게 확인하였다(Gottman & Levenson, 2000). 또한 결혼만족은 부부의 심리적 고통이나 부정적인 생활 스트레스에 완충적인 역할을 하므로 부부가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혼만족도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Karney & Bradbury, 1995).

결혼만족도의 일반적인 정의는 부부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나 태도라고 할 수 있다(권정혜, 채규만, 1999). 국내에서는 1970년대 말부터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들이 시작되었는데 초기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변인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나, 차츰 스트레스 같은 환경 변인이나 성격, 정서, 인지 등의 개인 내적 변인, 역할기대, 의사소통, 애정 표현방식 같은 상호작용 변인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박영화, 고재홍, 2005).

결혼만족과 관련하여 다양한 심리학적 연구들이 있지만, 최근에는 애착이론이 연인이나 부부 등의 친밀한 관계 형성과 유지, 해체 등의 연구를 위한 이론적인 틀로 부각되고 있다(김광은, 2005; 한혜영, 현명호, 2006; Collins & Read, 1990; Hazan & Shaver, 1987; Shaver & Hazan, 1988; 이희숙, 박경, 2008에서 재인용). 그 동안 부모-자녀간의 애착과 아동발달간의 관계는 많이 연구되었지만, 최근에 이르러서는 부모-자녀 애착의 개념을 평생에 걸쳐 형성되고 유지되는 전생애적인 관점으로 보고, 성인기 애착이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아동기의 부모-자녀간 애착과 달리 성인기 애착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애착대상의 전환이다. Bowlby는 결혼 혹은 그에 준하는 관계가 바로 대표적인 성인기 애착이며, 안전기반을 제공해 준다고 보았다. 아동기 애착과 성인애착의 또다른 차이점은 아동기에는 아동의 양육자에 대한 애착과 양육자가 아동에게 제공하는 보살핌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성인기에는 애착을 추구하는 대상과 애착대상 간에 보살핌이 상호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Feeney, 1999).

성인애착이 연인이나 부부 등 성인기의 친밀한 관계 연구에 있어 중요한 이론적 관점으로 부각되면서 국내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김광은, 2005; 김덕일, 1996; 박의순, 1997; 이성애, 2008; 이희숙, 박경, 2008; 장휘숙, 이영주, 2007; 한혜영, 현명호, 2006). 그러나 성인애착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혀낸 그간의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밝혀낸 연구들은 아직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Davila, Bradbury & Fincham, 1998; Hatch, 2008). 성인애착과 결혼만족간의 매개 변인으로 현재까지 연구되어 온 변인들을 살펴보면, 의사소통, 보살핌과 정서(김민희, 민경환, 2007), 배우자 조망수용과 갈등해결 효능감(한혜영, 현명호, 2006), 보살핌과 성적 친밀감(이희숙, 박경, 2008), 귀인과 파트너의 행동평가(Bradbury & Fincham, 1990; Cobb, Davila, & Bradbury, 2001), 배우자에 대한 감정표현과 의사소통(Feeney, 1994, 1999), 부정적 정서성(Davila et. al., 1998), 심리적 불편감과 사회적 지지(Meyers & Landsberger, 2002)등이 있다. 그러나 성인애착과 결혼만족 사이의 연결기체에 관한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이희숙, 박경, 2008).

많은 연구들이 애착이 결혼만족도를 잘 예측한다고 밝혀왔고, 둘 간의 관계가 충분히 지지되었다 하더라도 성격변인인 성인애착을 변화시킴으로써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아동기 때부터 형성된 애착이 내적 작동모델을 통해 개인의 성격 특성으로 발달하면서 쉽게 변화되지 않으므로, 짧은 기간 안에 상담과 같은 개입을 통하여 효과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다(Mallinckrodt, 2000). 따라서 부부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역동을 이해하고, 불안정 애착을 지닌 개인의 결혼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애착과 결혼만족도 간의 과정적인 측면들을 탐색하고 그 변인들을 확인하여 연결 기체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애착 이외에도 공감능력을 들 수 있다. 최근 긍정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연구자들은 개인의 긍정적인 특성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으며 (Seligman, 2002; Snyder & Lopez, 2002, 2006), 공감도 긍정심리학적 변인의 하나로서 개인의 긍정적인 심리적응과 관련성의 측면에서 연구자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 왔다(이희경, 2007). 공감은 상대 배우자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으로 공감의 정도가 결혼의 안정성과 적응을 예측하기도 하고, 부부가 이혼하려는 경향을 예측하는 데에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Long & Andrews, 1990). 모든 상담이론에 걸쳐서 핵심적인 치료조건인 공감능력이 이제는 상담과 심리치료의 분야를 넘어서서 사람의 심리와 인간관계를 다루는 분야 전반에서도 주목하는 변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부부관계에서도 공감능력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박성희, 1994). 하지만 국내에서는 공감과 관련하여 주로 공감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나 공감능력과 이타행동, 또래관계, 문제행동 등 다른 변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고, 대상도 주로 아동, 청소년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는 아직 미비한 수준으로, 부부갈등과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에서 공감과 용서의 매개효과를 알아본 양영숙(2008)의 연구와 공감능력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용서의 매개효과를 본 김현주(2009)의 연구만 있을 뿐이다. 김현주(2009)의 연구에서는 공감능력, 특히 정서적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었다.

한편, 공감능력 이외에도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 중의 하나로 정서조절을 들 수 있다. 인간에게 있어 정서 표현은 단순한 감정 표출을 의미할 뿐 아니라, 원활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정서경험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개인의 적응 및 대인관계에서의 성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연구자들은 오랫동안 정서를 순수하게 인간 내부적

인 것으로 생각해왔으나 최근에 심리학자들은 대인관계에서 정서가 하는 역할과 기능을 인식하여 사랑, 연민, 공감 등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Kalat & Shiota, 2005). 정서조절은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이나 갈등에 대하여 개인이 정서적 자극 축진의 정도를 조절하는 대처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부부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적절히 대처하고 조율해 나가는 것이 결혼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개인의 정서조절능력이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정서조절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준다(Feeney, 1999)는 것과, 정서적 역량(emotional competency)이 낮을수록 결혼 지속기간이 짧다(Gottman & Levenson, 2000)는 것을 발견했으며, 또한 정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인식하는 능력과 결혼생활의 행복은 관련성이 높았다. Noller와 Ruzzene(1991)에 따르면, 행복한 부부는 불행한 부부보다 서로의 감정상태를 더 잘 알아차리며 감정에 더 민감하고, 불행한 부부는 상대방의 의도를 오해하고, 배우자의 정서를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정서조절과 결혼만족도간의 관련성은 입증되었지만, 애착과 대인관계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정서를 고려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아직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신지옥, 2006). 성인기에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이 이미 형성되어 있으며 부부관계의 패턴은 기본적인 애착에 의해 상당부분 반복된다. 따라서 애착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우나, 정서조절은 성인기에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영역으로 더 적응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상담가나 임상가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부부 문제에 개입함으로써 실질적인 치료적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인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의 매개 변인들로서, 공감능력과 정서조절곤란을 상정하여 연구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결혼만족도의 개념

부부간의 정서적 구조를 파악함에 있어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매우 주관적인 것이므로, 객관성을 가지고 조사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부부간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개념화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그 중요성이 주창되어 왔고, 많은 관심을 받아온 분야이다.

권정혜와 채규만(1999)은 결혼만족도는 결혼 생활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욕구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를 경험하는 주관적인 감정이나 태도로, 그 기준은 개인이 결혼생활에서 기대했던 것 또는 현재의 결혼생활이 종결되었을 때 다른 대안과 비교하여 현재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롭고 만족스럽다고 고려되는 주관적인 상태라고 규정하였다. BURGESS와 Locke(1945)은 한 개인이 결혼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만족하는가에서부터 불만족하는가에 이르는 연속선상의 태도라고 정의하였고, Hawkins와 James(1968)는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부부의 행복, 만족과 기쁨의 주관적인 감정이라고 정의하였다. Roach, Frazier와 Bowden(1981)은 결혼만족도를 주어진 시점에서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얼마만큼 좋아하고 싫어하는가 하는 선호의 태도라고 정의하였다(권정혜, 채규만, 1999에서 재인용). Rice(1979)는 결혼만족도란 남편과 아내의 개인적 욕구가 서로의 상호작용을 통해 충족되는 정도를 말하며, 부부간의 상대방에 대한 기대와 상대방이 보이는 실제 수행과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렇듯, 결혼만족도의 정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권정혜, 채규만의 정의를 기본으로 결혼만족도란 ‘부부관계에서 판단

되거나 인지되는 경험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평가 또는 태도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기대와 결혼생활의 결과 사이의 일치도'라고 정의하였다.

2. 부부관계에서 성인애착의 이론적 관점

1) 애착과 내적 작동모델

애착이론은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과 형성하게 되는 강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뜻하는 개념으로 생애 초기 유아와 주양육자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Bowlby가 처음 제안하였다. Bowlby에 따르면, 유아는 출생시부터 생물학적으로 부모에게 애착되도록 동기화되어 있는데, 출생 후 오랫동안 타인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아야만 생존이 가능한 인간에게 있어 특히 생애 초기 양육자와의 정서적 유대는 자신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종족 보존의 기능을 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애착체계는 세 가지 기능을 하는데 첫째, 근접성 추구(proximity-seeking) 기능으로, 이는 유아가 양육자와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양육자를 안전한 안식처(safe heaven)로 생각할 가능성을 증대시켜 주는 것으로, 이로 인해 유아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두려움을 느낄 때, 지지와 편안함을 얻기 위하여 자신을 돌보는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유아는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거나 성장 지향적인 행동을 할 때 양육자를 안전한 기지(secure base)로 여긴다(Bowlby, 1969).

이러한 애착과정에서 유아는 애착대상이 자신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적절한 지지와 보살핌을 제공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다른 사람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표상(타인에 대한 작동모델)을 형성하게 되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애착대상으로부터 돌봄과 사랑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표상(자신에 대한 작동모델)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유아가 애착대상의 반응성과 가용성을 바탕으로 형성한 자기와 타인 및 세상에 대해 내적으로 표상된 기대가 내적 작동모델이다(Bowlby, 1973). 즉, 다시 말하면, 내적 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이란 한 개인이 일상 생활에서 매 순간 환경과의 교류를 통해 축적한 자신과 세상에 대한 경험의 의식적이며 무의식적인 표상의 형태로 내재화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내적 작동모델이 형성되는 과정에 따라 개인의 애착 유형이 달라지며,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애착 유형을 안정애착, 회피애착, 불안/양가애착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Bretherton, 1992; Main, Kaplan, & Cassidy, 1985).

Bowlby(1973)는 아동기 애착에 초점을 두었으면서도 내적 작동모델이 평생 동안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기 경험이 성인기의 성격이나 대인관계에 대한 신념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바 있다. 내적 작동모델은 주요 애착 대상과의 경험을 통해 친밀감과 안정감의 조절과 충족을 중심으로 발달하며 개인적인 잠재력과 건강한 대인관계의 기초를 제공하고 성인기의 친밀한 관계에서의 정서적,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Collins & Read, 1990; Hazan & Shaver, 1987; Kirkpatrick & Davis, 1994). 이렇듯, 내적 작동모델은 성인애착으로 이어지며 이는 개인의 성격특성으로 발전하게 된다(Mallinckrodt, 2000).

2) 성인애착의 개념과 유형

애착이론은 최근에는 부부나 연인 등 성인기의 친밀한 관계 연구에 있어 중요한 이론적 관점이 되고 있다(Collins & Read, 1990; Hazan & Shaver, 1987). 성인애착에 대한 연구는 유아기에 형성된 애착이 전생애를 통해 지속되고, 성장과정을 통하여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애착이 형성될 수 있다는 다양한 연구결과(Ainsworth, 1989; Feeney & Noller, 1991; Hazan & Shaver, 1987; Kirkpatrick & Davis, 1994)를 근거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애착은 전생애를 통해 계속될 수 있는 양방향적인 정서적 유대관계로 이해할 수 있으며, 특히 성인애착은 생애 초기에 형성된 양육자에 대한 애착이 내적 표상의 형태로 내재화된 것으로서 ‘신체적이거나 심리적으로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소수의 특정한 인물을 찾고 근접성을 유지하려는 개인의 안정된 성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Berman & Spering, 1994). 애착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형성되고 유지되므로, 성인애착에서는 성인기 동안 가장 중요하고 오래 지속되며 친밀한 관계인 부부관계가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성인애착 연구 초기에 Main 등(1985)은 Ainsworth와 그의 동료들(1978)이 영아기 애착을 분류한 것과 유사한 성인애착 유형을 발견하여 영아기의 애착 분류와 마찬가지로 성인애착도 처음에는 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Hazan과 Saver(1987)의 분류를 사용한 연구들에서 3개로 분류된 애착 유형들 간의 특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거나, 차이가 나타난 특징들이 후속 연구에서 일관적으로 지지되지 않는 등 세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Collins & Read, 1990). Hazan과 Shaver가 성인기 애착의 3범주 모델을 제안한 것과 달리,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4범주 모델을 제안하였는데, 이들은 인생 초기의 양육자에 대한 애착은 자기와 타인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의 형태로 내면화된

다는 Bowlby의 주장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내적 작동모델을 가정하였다. 이후 연구가 진행되면서 애착의 3범주 모델보다는 4범주 모델이 성인기 애착을 더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Bartholomew와 Horowitz(1991)에 따르면 성인애착 유형은 안정형(자기긍정-타인긍정), 거부형(자기긍정-타인부정), 두려움형(자기부정-타인부정), 몰입형(자기부정-타인긍정)으로 나뉘는데 3범주 유형과 가장 큰 차이는 3범주의 회피형을 거부적-회피형과 두려운-회피형으로 세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Bartholomew와 Horowitz(1991)와 유사하게 Brennan, Clark와 Shaver(1998)는 성인애착이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이라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두 개의 축을 사용하여 이해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이차원적 모델에 기반한 애착 질문지는 성인애착의 유형을 측정하는 신뢰롭고 유용한 도구로 확인되었다(Kalat & Shiota, 2005). 애착회피는 친밀함과 의존성으로 인한 독립성 침해에 대한 공포를 반영하는 정도로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타인모델과 일치한다. 다른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고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은 회피 차원이 높은 사람이다. 애착불안은 거부와 버려짐에 대한 공포를 반영하는 정도로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자기모델과 일치한다. 자신을 무가치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안 차원에서 높은 점수를 갖는다.

3)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성인애착이론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들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각광받는 개념적 틀 중의 하나이다(Davila et al., 1998). 성인애착의 개념을 부부 관계에 적용해 보려는 선구적인 시도는 Parkes(1972)와

Weiss(1975)의 연구에서 시작되었고, 이들은 주로 성인애착을 애착대상의 상실과 관련된 위기상황인 사별과 이혼 등을 모델로 하여 연구하였다. 이후에 애착 개념을 연인이나 부부처럼 친밀한 관계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Hazan과 Shaver(1987)의 연구와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연구에 의해 가속화되었다. 성인애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연구들에서 연인과 부부의 애착 유형이 관계만족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고, 부부의 안정애착과 관계만족 사이에 강한 정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지하게 되었다(Collins & Read, 1990; Mikulincer, Florian, Cowan, & Cowan, 2002). 안정적으로 애착된 배우자는 불안정 애착된 배우자보다 두 사람의 관계에 더 높은 만족감을 보였고, 안정애착형 남편은 문제 해결과정에서 더 지지적이고 덜 거부적이며, 안정애착형 아내 역시 덜 거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Kobak & Hazan, 1991). 또한 성인애착의 불안차원과 회피차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이 낮음을 지지하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으며(Cobb et al., 2001; Gallo & Smith, 2001; Lussier, Sabourin, & Turgeon, 1997), 우리나라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러한 내용과 일치하는 결과들을 밝혀왔다(이성애, 2008; 이희숙, 박경, 2008, 한혜영, 현명호, 2006).

성인애착의 유형별 특성이 둘 사이의 관계 경험과 질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둔 성인애착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안정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대체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친밀하고 지지적이며, 공감하고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관계를 신뢰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관계에 집착하거나 무관심하며 갈등상황에서도 관계를 위협하는 공격적 행동이나 폭력이 증가하여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이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희숙, 박경, 2008).

3. 공감능력

1) 공감의 개념

공감은 약 1세기 전에 생긴 개념으로, 독일의 철학자인 Theodor Lipps가 1903년에 심미적 체험을 설명하는 이론의 중심 개념으로 공감(Einfühlung)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Lipps는 예술 작품을 잘 감상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을 동원하여 우리의 마음을 그 작품의 '틀(frame)'속으로 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Ickes, 2003). 그 후로 상담과 심리치료 분야에서는 1957년에 Carl Rogers가 치료적 변화를 위해 “필요하고도 충분한 촉진적인 핵심 조건”의 세 가지 중 하나로 공감적 이해를 강조한 이후로 후속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공감의 개념이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어 온 탓에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등 여전히 혼란이 지속되어 왔다. 상담과 심리치료 분야에서 공감에 대한 개념과 측정 방법상의 문제가 혼란과 논쟁을 거듭하는 동안, 발달심리학이나 사회심리학과 같은 인접 분야에서는 독립적으로 공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발달심리학에서는 공감을 타인의 경험에 대한 대리적 경험 반응으로 정의하고(Hoffman, 1982; Feshbach, 1978, 1982), 공감의 요인과 발달단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사회심리학에서는 일반화된 성격 변인으로서 공감을 보는 입장(특성 공감)과 타인 관찰에 의한 정서적 반응으로서 공감을 보는 두 가지 입장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신경일, 1993에서 재인용).

공감은 정서의 공유로서 정의하는 입장과 타인의 생각이나 상황, 감정을 정확히 아는 인지적인 것으로서 정의하는 두 가지 입장이 공존하면서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공감을 타인의 생각이나 상황, 감정을 정확히 아는 것으로 정의하는 입장은 관점수용이나 역할수용의 개념과 구분되기 어

렵기 때문에 공감은 더욱 정서적인 개념으로서 정의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Underwood & Moore, 1982). 공감을 정서적인 관점에서 정의하고자 노력했던 학자들(Eisenberg & Strayer, 1987; Feshbach & Feshbach, 1982; Feshbach, 1987; Hoffman, 1982)은 공감을 대리적 정서경험으로 정의하고 대상자의 정서와 관찰자의 정서가 일치하는 정도로써 공감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공감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면서 공감은 인지나 정서, 어느 한 부분에만 관련된 단일 개념이 아니며 여러 가지 차원과 과정이 관련된 대인간 반응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통합적으로 보기 시작하였다(Davis, 1980, 1983; Feshbach, 1982; Iannotti, 1978). 즉, 공감에는 인지적, 정서적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각 요소는 서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요소만 연구해서는 공감의 현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Davis(1980)는 공감을 단일한 차원으로 보기보다는 다차원적인 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공감을 네 개의 하위차원(타인의 관점수용, 불행한 타인에 대한 동정심, 소설이나 영화에 몰입하는 경향, 타인의 부정적 경험을 보았을 때의 불편함)이 포함된 복합적인 구성개념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심리학, 사회심리학 분야와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연구되어 온 공감에 대한 개념을 통합하여 정리한 신경일(1994a)의 정의인 ‘인지적인 관점수용과 정서적인 공유의 내적 과정을 거쳐 외적으로 표현되는 다차원적 과정’을 공감이라고 정의하였다.

2) 공감의 구성요소

지금까지 학자들은 공감의 정의에 관한 수많은 논의를 거치면서 적어도 공감은 단일 차원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차원의 개념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데(Borke, 1972; Chaldler & Greenspan, 1972), 다만 연구자의 입장에 따라 어느 한 요소를 보다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박성희, 2004에서 재인용). 공감의 구성요소에 대한 이전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개 공감을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으로 구분하는 것에 일치하고 있다.

공감의 인지적 요소에는 타인의 관점이나 역할을 수용하는 관점수용 능력이나 역할 수용이 포함된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Hoffman(1982)은 아동의 공감발달을 설명하면서 어린 아동들은 자발적이고 무의식적인 대리 정서반응으로써 공감을 경험하나 점차 성장하면서 자신의 공감적 경험의 원천이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서 온 것임을 인식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어린 아동들은 자타분화에 대한 의식없이 무의식적 정서 감염에 의해 공감을 경험하나 점차 타인에 대한 인지적 감각이 발달됨에 따라 보다 성숙한 공감자로 변화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Feshbach와 Feshbach(1982) 역시 공감을 위해서는 대상과 관찰자의 분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공감을 위해서는 대상의 감정을 공유하고 관점을 수용하는 능력이 필요하지만 대상과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상과의 혼합, 즉, 자타가 혼합되었을 때 강력한 정서반응이 나타나며 더구나 그러한 강한 정서가 인지적 통제를 넘어설 때 충동적 행동이나, 공격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타인의 관점이나 역할을 수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아중심성의 극복, 자타분화가 전제조건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정서적 요소를 살펴보면, 공감의 정서적 요소란 공감에 의한 정서반응을 의미한다. 공감적 정서반응은 정서의 공유, 정서적 공명, 정서적 감염, 개인적 고통, 공감적 관심, 동정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신경일, 1994a). 그러나 공감에 의한 정서반응은 대체로 두 가지 정서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공감에 의해 관찰자와 대상이 같은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이다. 정서의 공유, 정서적 공명은 이렇게 대상과 관찰자가 동일한 감정을

경험한다는 의미로서 사용된다. Eisenberg와 Strayer(1987)는 공감과 동정을 구별하면서 공감을 이렇게 대상과 관찰자가 같은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개념화하였다. 둘째, 대상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이다. Davis(1980)가 소개하였던 인지적 동정, 공감적 관심, 동정적 고통 등이 여기에 속한다. Eisenberg와 Strayer(1987)의 정의에 의하면 동정이란 종종 공감으로부터 나오며 타인의 정서 상태나 조건의 이해를 기초로 한 대리적 정서반응으로서 슬픔이나 타인에 대한 관심의 감정으로 구성된다 고 주장하였다.

정리해보면, 공감에 의한 정서반응에는 대상과 동일한 정서를 경험하는 정서 반응이 있고(정서적 공명, 정서의 공유, 정서적 감염), 대상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부정적 경험을 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동정, 관심, 연민의 정서를 경험하는 정서반응(동정, 공감적 관심, 동정적 고통)이 있다. 대상과 동일한 정서를 경험하는 반응은 여러 가지 명칭이 있겠지만, 대체로 사회심리학자들의 경우 공감으로 정의하고 있다(Eisenberg & Strayer, 1987).

공감의 구성요소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는 공감이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의사소통적 요소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는 점, 외부의 어떤 변인과 관련되는가에 따라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점, 공감이 어느 한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 순환적으로 작용한다는 점, 개인의 성격으로서의 특성공감과 특정한 상황 속에서 표현되는 상황공감이 다르다는 점 등을 밝혀주고 있다(박성희, 2004).

3) 성인애착과 공감능력의 관계

애착과 공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로부터 성향적 공감은 초기 아동기의

애착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요컨대, 양육자와의 강한 애착은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욕구에 덜 집착하게 하여 타인의 욕구에 더욱 민감해질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Barnett, 1987). 최근의 성인애착 연구자들은 아동기에 형성되는 양육자와의 애착이 이후 타인 및 자신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로 이어지며, 이 내적 작동모델은 공감적 성향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그동안 여러 연구들을 통해 애착과 공감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Britton & Fuendeling, 2005; Joireman, Needham, & Cummings, 2001; Perlman, 1999; Posner, 2000), 성인애착이 공감과 관련이 있다는 것에는 몇 가지 이론적 근거가 있다. 첫째, 안정애착 차원인 타인과 가까워지고 의지하는 것에 대한 편안함은 부모의 감정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관점도 이해하고 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친밀감을 형성시킬 수 있으며, 이것은 모두 공감의 핵심요소에 해당된다(Collins & Read, 1990; Joireman et al., 2001). 또한 불안정 애착차원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공감이 가능할만큼 배우자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개인의 친밀감 형성 능력을 방해하기 쉽다(Joireman et al., 2001). 게다가, 불안정 애착은 공감을 어렵게 만드는 것과 관련된 개인적 고통(personal distress)을 더 많이 일으키기 쉽다(Perlman, 1999; Posner, 2000).

Simpson, Ickes와 Grich(1999)도 애착성향이 관계 위협적 상황에서 자신의 공감 정확성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불안/양가형인 사람들은 관계에 대한 위협을 느낄 때 파트너의 생각과 감정에 관하여 과도하게 경계하게 된다. 반면, 회피형의 사람들은 관계 위협적 상황에서 파트너의 생각과 감정을 추론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은 일반적으로 공감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의 성인애착에 따라 공감능력이 개인차를

보일 수 있으며, 두 변인은 연관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4) 공감능력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인간관계 초기에서 공감은 대인매력의 요소가 되며, 초기 단계 이상의 관계에서는 관계의 만족과 성장의 기초가 되는 의사소통 과정보다 중요한 요소가 된다(Guerney, 1977; 안자경, 2008에서 재인용). 공감은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공감적 반응은 자기 개방을 증가시키고, 타인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하며, 지원적인 의사소통의 분위기를 제공해 줌으로써 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박성희, 2004).

부부생활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배우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용이라고 할 수 있다. Rogers(1961)는 부부관계에서 배우자를 나의 관점에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비판단적인 태도 혹은 비평가적인 태도가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배우자에 대한 이해와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는 공감의 기초가 되며, 공감은 결혼의 안정성과 적응성 등 결혼만족도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됨을 많은 연구자들이 일관적으로 보고하고 있다(Long & Andrews, 1990; Rowan et al., 1995; Schutte et al., 2001). 국내 연구에서도 개인의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의 수준도 높아지며 특히 공감능력 중 정서적 공감이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에 대한 온정, 연민, 관심의 감정태도를 지니는 사람일수록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김현주, 2009).

Esser와 Schneider(1990)는 부부관계 치료과정에서 치료자의 주요 과업은 부부 사이의 개방적이고 공감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을 촉진시키며 배우자 사이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치료과정에서 배우자에

대한 공감능력을 키움으로써 배우자들이 상호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Greenberg, Ford, Alden과 Johnson(1993)도 부부 치료의 성과에 대한 과정 연구를 통해 부부 사이에 존재하는 분노, 슬픔, 두려움, 이해와 지지, 수용과 안정에의 욕구 등의 감정을 정확히 지각하고 배우자와 공감적 의사소통의 촉진과정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친밀감과 상호 이해가 증진됨으로써 부부관계가 변화된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도 부부치료 및 부부교육 프로그램에서 공감적 태도를 촉진시켜 배우자에 대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존중과 이해, 일치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공격성 등 부정적 정서가 감소되고 부부 의사소통 향상, 친밀감 형성 등 결혼적응 및 결혼만족도를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다(김희진, 2005; 박남숙, 2005; 오윤자, 유영주, 1994). 따라서 부부 사이의 공감적 이해와 태도는 부부관계에 변화와 성장을 일으키는 강력한 힘이 되어 부부의 정서적 유대감과 친밀감을 증진시키며 부부관계에서 치료적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4. 정서조절론

1) 정서조절의 개념

정서조절은 비교적 최근인 1980년대부터 연구주제로 관심을 받기 시작했으며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정의를 제시하였으나 아직까지 연구자들간에 정서조절에 대해 합의된 정의는 없다(이지영, 권석만, 2006). Thompson(1994)은 정서조절에 관한 통합적 정의를 제시하였는데, 그는 정서조절을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정서적 반응을 관찰하고, 평가하고, 수정하기 위한 외적 및 내적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Gross(1998)는 많

은 연구자들이 정서조절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작업적 정의는 대개 다섯 가지 측면을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사람들은 긍정적, 부정적 정서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고자 노력한다. 둘째, 상이한 정서경험에 따라 정서조절 행동 또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셋째, 이러한 정서조절에 대한 정의는 기본적으로 자기조절(self-regulation)의 측면을 강조한다. 넷째, 전형적인 정서조절 행동은 의식적이다. 다섯째, 정서조절이 좋은가 나쁜가에 대한 선형적 가정은 중요하지 않다.

정리해 보면, 정서조절이란 정서를 유발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능력과 기술이며,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 상황에서 자신의 대처방식대로 대인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도 하고, 자신의 정서적 경험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이귀선, 2002). 정서조절과 대처의 차이점은 대처가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줄이기 위한 시도인 데 반해, 정서조절은 긍정적 감정을 불러오기 위해 즐거운 무언가를 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점이다(Kalat & Shiota, 2005).

본 연구에서는 Gratz와 Roemer(2004)가 개념적이고 경험적인 연구에 기초하여 개념화한 정서조절의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Gratz와 Roemer(2004)는 정서조절에 대해 크게 4가지의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정의를 내렸다. 즉, 정서조절이란 첫째, 정서에 대한 자각과 이해이며, 둘째, 정서의 수용, 셋째,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때 부적절하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개인이 바라는 목표와 일치되게 행동하는 능력,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목표와 상황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서반응을 조절하기 위해 상황에 적절한 정서조절 전략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만약 이러한 능력이 결핍될 경우 정서조절 곤란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2) 애착과 정서조절의 관계

지난 20년간, 애착이론은 정서조절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유용한 개념적 틀 중의 하나였다(Mikulincer et al., 2003). 애착의 정의에서도 정서적 유대관계를 강조하는 것을 볼 때, 정서조절은 애착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Davila et al., 1998), Bowlby의 ‘근접성 추구’의 개념은 일종의 내재적 정서조절 장치(일차적 애착전략)이다. 즉, 근접성 추구를 통한 정서조절 기능의 성공적인 완성은 안정애착을 낳게 되고, 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 또한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에서 조직화되는 것이다(Bowlby, 1988). 그러나 만약, 양육자가 유아에게 가용적이지도 않고 반응적이지도 않다면,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한 근접성 추구는 실패하며 안정애착 또한 얻지 못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자신 및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표상이 형성되며, 근접성 추구가 제외된 정서조절전략(이차적 애착전략)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Mikulincer, Shaver, & Pereg, 2003). 이렇게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은 이후 발달 단계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서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성화되어 개인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친다.

애착 유형에 따라 정서조절 양식에서 개인차를 보인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었다(이귀선, 2002; Feeney, 1999; Kobak & Sceery, 1988; Searle & Meara, 1999). 안정애착이 형성된 사람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수용하고 통합하는 유연성이 있는 반면, 불안정 애착된 사람은 부정적인 정서를 제한시키거나 극대화시키는 경향이 있다(Cassidy, 1994). 불안정 애착 중에서도 회피애착이 형성된 사람은 거부당한 경험으로 인해 애착대상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부정적인 느낌의 표현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고, 불안애착이 형성된 사람은 부정적 감정의 표현을 극대화해서 보여주게 되는데, 이는 지속적이지 않은 양육자와의 접촉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Kobak & Sceery, 1988).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불안정 애착 집단이 안정애착 집단과 정서양식 면에서 서로 구분된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Searle & Meara, 1999).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과 정서조절간의 관계를 연구한 Kobak과 Sceery(1988)는 대학생 집단에서 애착 양식에 따라 개인의 정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남을 발견했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안정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괴로움을 인정하고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건설적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심리적 괴로움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으나, 거부적(dismissing) 애착양식을 가진 사람들은 내적 괴로움을 부정하거나 무시하였다. 또한 이들은 적대감이 높았는데 이는 애착의 좌절과 거절을 예상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몰입형(preoccupied) 애착양식을 가진 사람들은 거부형 집단에 비해 가족의 지지는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지각했으나 더 높은 수준의 불안을 느끼고 있고 더 많은 개인적 불편감을 경험하며 자아탄력성이 낮아 어려움에 대처할 준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불안정 애착은 정서조절과 관련이 있으며, 긍정적 정서보다는 부정적 정서와 연관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Feeney, 1999). Feeney(1995)는 연인관계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기연구를 수행한 결과, 불안정 애착인 경우에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자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Searle과 Meara(1999)도 4가지 애착 유형에 따라 정서경험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혔는데, 안정형은 의존적이지 않으면서 표현적이기 때문에 감정을 쉽게 열고 경험한 것을 편안하게 표현한다. 의존형은 의존적이고 표현적이므로 감정이 격하고 불안정하여 과도하게 감정을 표현한다. 거부형은 의존성도 적고 표현도 적게 하므로 낮은 수준에서 감정을 느끼거나 감정을 느끼는 것을 제한한다. 두려움형은 의존적인 성향은 있으나 표현을 적게 하므로 감정에 대해 어려워하고 숨기는 경향이 있으며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지 못한다.

애착 유형에 따른 정서조절 양식을 정리해보면, 불안정 애착 중에서도 애착불안이 높은 사람은 애착관계에서 위협을 지각할 때 애착대상의 주의를 끌기 위해 부정적 정서를 과장하고, 애착회피가 높은 사람은 부정적 정서를 억제하거나 최소화하여 관계가 더 위협받지 않도록 한다. 반면, 안정애착인 사람은 관계의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 정서를 과장하거나 최소화시키지 않고 숨김없이 직접적으로 표현한다(Davila et al., 1998).

3) 정서조절곤란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정서나 주의, 각성을 조절하는 능력은 일생동안 행동이나 사회적 관계, 적응적 기능을 조직화하는 데 기초가 된다고 한다(Miller, McDonough, Rosenblum, & Sameroff, 2002). Gottman 등(1998)은 행복한 부부를 대상으로 장기간 연구한 결과, 행복한 결혼생활의 예측요인은 갈등의 ‘해결’이 아닌 갈등의 ‘조정’이라고 하였다. 경험적 연구들은 성공적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부부에게도 대부분의 결혼관련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 존재한다고 보고한다. 결혼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하는 부부나 그렇지 못한 부부나 해결 못하는 문제는 안고 살아가지만 이런 문제를 다룰 때의 차이점은 정서 상태에 있다. 문제에 대해 발전적인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정체 상태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해결할 수 없는 갈등에 대한 대화시, 부정적인 감정을 증폭시키는 대화를 주고받거나, 신체적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할 때 관계는 악화된다(Gottman, 1999). 반면, 갈등 상황에서 갈등에 대한 건설적인 접근들은 부부가 당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관계에 대한 관심과 몰입으로서 간주되고, 부부간의 친밀성을 일으키기 쉽다(Cahn, 1990).

부부간의 상호작용에서 정서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은 결혼만족에 영향을 준다. 특히 부정적인 정서 뿐 아니라 긍정적인 정서의 표현 역시 결

혼만족도를 예측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갈등 시 드러내는 부정적인 정서는 곧 이혼으로 이어지지만, 일상에서 긍정적인 정서가 적은 것 역시 부부관계를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혼을 예측하였다 (Gottman & Levenson, 2000).

한편, 부부간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들은 정서표현성과 정서지각 정확성에 있어 몇 가지 놀랄 만한 성차를 보였다. Noller와 Ruzzene(1991)은 정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인식하는 데에 여성이 남성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아내는 남편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낼 때 미소나 따뜻한 음성과 같은 비언어적 단서를 조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반면, 남편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낼 때 미소와 함께 눈썹을 찡그리는 것과 같은 잠재적으로 위협적인 단서를 보내는 등 ‘혼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경향이 있었다.

정서조절, 특히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에 대한 경향성은 결혼의 질과 안정성의 중요한 요인이 되며 결혼만족도와 관련이 있다(Davila, et al., 1998). 전반적으로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정서를 정확하게 지각하고 인식하는 능력, 정서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에서 뛰어나며, 행복한 부부는 불행한 부부에 비해 정서를 인식하는 것과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서 우수하다. 부부 연구가들은 부부가 정서를 지각하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조절하고 표현하는 것에 뛰어날수록 그들의 관계는 더 행복해진다는 것을 증명했다(Kalat & Shiota, 2005).

즉, 정서조절 과정은 배우자와의 상호작용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Gross, 1998), 정서조절은 애착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결과(Feeney, 1999)가 있으므로,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III. 연구 문제 및 가설

본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성인애착(애착회피와 애착불안), 공감능력, 정서조절곤란, 결혼만족도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가설 1-1. 성인애착(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은 결혼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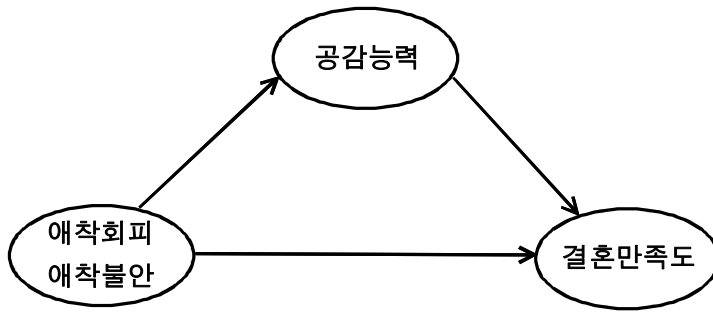
가설 1-2. 성인애착(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은 공감능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고, 공감능력은 결혼만족도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1-3. 성인애착(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은 정서조절곤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고, 정서조절곤란은 결혼만족도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성인애착(애착회피와 애착불안)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가설 2-1. 성인애착(애착회피와 애착불안)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이 매개할 것이다.

연구문제 2에 따른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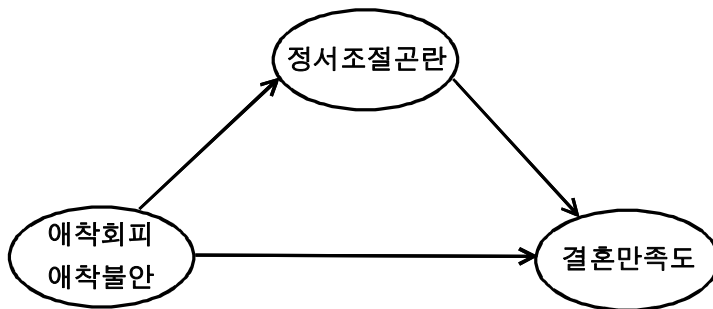


<그림 1> 공감능력의 매개모형

연구문제 3. 성인애착(애착회피와 애착불안)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가설 3-1. 성인애착(애착회피와 애착불안)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할 것이다.

연구문제 3에 따른 연구모형은 <그림2>와 같다.



<그림 2> 정서조절곤란의 매개모형

IV.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자가 가족, 친구, 교회 등을 통해 그들의 주변인물들로 확대해서 표집하였다. 설문지는 비밀보장을 위해 각각 별도의 봉투에 넣어 배부하였고, 작성이 끝난 후 봉투를 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자료의 수집기간은 2009년 9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였으며 총 446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377부(84.5%)가 회수되었고, 이 중에서 누락된 문항이 많은 7부를 제외한 370부와 인터넷을 통해 게시한 웹설문지에 응답한 28명의 자료를 합하여 최종적으로 39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178명(44.7%), 여성이 220명(55.3%)이었으며, 평균연령은 남성이 40.4세(표준편차=9.6), 여성은 41.9세(표준편차=11.1)였고, 연령범위는 27세부터 71세까지였다. 연구대상자의 자세한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사례수(N=398)		백분율(%)
		남	여	
연령	20대	1	17	4.5
	30대	103	96	50.1
	40대	47	48	23.9
	50대	15	35	12.6
	60대 이상	12	23	8.8

	2년 미만	31	39	17.6
	2년 이상~5년 미만	41	36	19.4
결혼 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	37	28	16.4
	10년 이상~20년 미만	41	44	21.4
	20년 이상	28	72	25.2
	없음	40	52	23.1
자녀수	1명	57	53	27.6
	2명	69	90	39.9
	3명 이상	12	25	9.3
	고졸 이하	8	25	8.4
최종학력	전문대졸	11	21	8.1
	대졸	109	125	58.9
	대학원 이상	50	48	24.7
	전문직	61	66	32.2
직업	사무직	84	50	33.9
	자영업 및 서비스업	14	15	7.4
	전업주부	0	73	18.5
	기타	18	14	8.1
	기독교	83	108	48.6
종교	천주교	17	42	15.0
	불교	18	24	10.7
	무교	53	40	23.7
	기타	5	3	2.0

2. 측정 도구

1) 성인애착 척도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Brennan 등(1998)이 “성인애착의 자기보고형 측정에 관한 통합적 개관”에서 소개한 성인애착 척도(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Scales: ECRS)를 김광은과 이위갑(200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ECRS는 성인의 친밀한 이성관계(romantic relationship) 내에서 경험하는 애착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Brennan 등(1998)은 14개의 자기보고식 애착 측정 도구를 통합하여 482개 문항을 추출하였고, 비슷한 문항의 중복정도를 평가하여 최종 60개 문항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회피와 불안이라는 두 개의 독립요인이 산출되었는데, 불안 하위척도는 거절과 포기, 몰입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고, 회피 하위척도는 의존성 또는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친밀성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한다. 문항은 성인애착의 기본적인 두 차원인 회피와 불안에 대해 각각 18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Likert식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매우 그렇다)까지로 선택하게 되어 있다. 각각의 요인에 대해 응답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18점에서부터 126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차원의 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광은과 이위갑(2005)은 이 척도가 한국에서도 타당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회피와 불안, 두 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김광은(2005)의 연구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문항 내용 가운데 ‘파트너’라고 명시된 부분을 ‘배우자’로 바꾸어 사용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배우자’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회피 차원과 불안 차원의 문항분류와 신뢰도(Cronbach's α)는 <표 2>와 같다. Brennan 등(1998)의 연구에서 회피요인의 신뢰도는 .94, 불안요인의 신뢰

도는 .91로 보고되었고, 김광은과 이위갑(2005)의 연구에서는 각각 .84였다. 본 연구에서 애착회피의 신뢰도는 .88, 애착불안의 신뢰도는 .81로 나타났다.

<표 2> 성인애착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문항	문항수	신뢰도
애착회피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18	.88
애착불안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18	.81

*는 역채점 문항

2) 결혼만족도 척도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Snyder(1979)의 결혼만족도 검사(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MSI)를 한국 실정에 맞게 권정혜, 채규만(1999)이 번안하고 수정한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K-MSI)를 사용하였다. K-MSI는 총 160문항으로 14개의 소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 연구의 목적과 일치하는 전반적 불만족 척도(Global Distress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결혼불만족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부부관계에 대한 느낌이나 태도를 알 수 있는 지표이다(권정혜, 채규만, 2002). 이 척도는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내용은 전반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 다른 부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느끼는 부부관계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 결혼생활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반영한다. 원 척도는 ‘예’, ‘아니오’로 응답하는 2점 척

도 설문이었지만, 변인의 변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5점 Likert 척도로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까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 불만족 척도 중 12개의 문항들을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다고 보았다.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2이며 2주간격으로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6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5로 나타났다.

3) 공감능력 척도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신경일(1994a)이 Davis(1980), Mehrabian과 Epstein(1972)의 공감능력 측정도구들을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하고 예비검사와 수정검사를 통해 신뢰도와 요인분석을 하여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신경일(1994a)은 공감의 인지적 요소를 측정하기 위해 Davis(1980)가 개발한 대인관계 반응성 척도(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의 4가지 하위척도 중 인지적 요소에 해당되는 관점수용 척도를, 정서적 요소의 측정을 위해 Mehrabian과 Epstein(1972)의 정서적 공감 척도 33개 문항과 Davis(1980)의 공감 척도의 하위 요인 중 정서적 요소를 측정하는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 척도(Personal Distress Scale)등의 14개 문항을 합하고 요인분석을 하여 개발하였다. 각 하위 척도들은 자기보고식 5점 Likert 척도로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경일(1994a)의 공감능력검사에는 공감의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표현적 요소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서적 공감능력은 다시 공감적 관심과 정서적 공명으로 나뉘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경일의 척도 중에서 표현적 능력을 제외하고 인지적 공감능력과 정서적 공감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공감능력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74였으며, 각 척도별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표 3> 공감능력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	문항수	신뢰도	
인지적 요소	관점수용	19*, 21, 24, 29, 31, 33	6	.45
	정서적 공명	1, 3, 11, 20, 23, 27, 30, 32	8	.74
정서적 요소	공감적 관심	2*, 4*, 5, 6*, 7, 8, 9*, 10*, 12*, 13, 14*, 15, 16*, 17, 18, 22, 25*, 26*, 28*	19	.78

*는 역채점 문항

4) 정서조절곤란 척도

정서조절곤란을 측정하기 위해 Gratz와 Roemer(2004)가 제작한 정서조절곤란 척도(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Scale: DERS)를 조용래(2007)가 번안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입증한 한국판 정서조절곤란 척도(K-DERS)를 사용하였다. DERS는 정서조절곤란을 다차원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Gratz와 Roemer(2004)는 정서조절과 정서조절곤란에 대한 기존의 개념들과 선행연구들을 두루 개관한 후 정서조절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를 제안하였으며,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DERS는 총 36문항의 자기보고식 검사이며, 충동통제곤란,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의 부족, 정서반응에 대한 비수용성,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 목표지향행동 수행의 어려움 등 6개의 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 척도는 내적 일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양호하며, 구성 및 예측타당도가 적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DERS의 장점은 정서조절곤란의 다차원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뿐 아니라, 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들의 맥락 의존적 성질을 고려하기 위해 그 전략들의 효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측정한다는 것이다(조용래, 2007).

K-DERS는 요인분석과 문항분석에서 예상과 반대 방향의 결과를 보인 1개의 문항을 제외한 3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 척도와 문항 구성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두 척도 모두 동일하게 6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각 문항은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정서조절곤란의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척도에서 10문항이 역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DERS의 신뢰도는 전체 척도 .93이었고, 하위척도는 .80이상이었다. K-DERS의 신뢰도는 전체 척도 .92였고, 하위척도는 .76~.89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K-DERS의 전체 신뢰도는 .92로 나타났으며 하위척도들의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표 4>와 같다.

<표 4> 정서조절곤란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문항	문항수	신뢰도
충동통제곤란	3, 14, 18, 26, 31	5	.88
정서에 대한 주의/자각의 부족	1*, 2*, 6*, 7*, 8*, 10*, 33*	7	.41
정서반응에 대한 비수용성	11, 12, 20, 22, 24, 28, 29	7	.88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	4, 5, 9	3	.76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	15, 16, 27, 30, 34	5	.82
목표지향행동 수행의 어려움	13, 17, 25	3	.80

*는 역채점 문항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5.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결혼만족도 관련 특성에 대해 빈도,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분석을 하였고, 성별에 따라 집단 간 차이 검증을 하였다.

둘째, 각 변인들(애착불안, 애착회피, 공감능력, 정서조절곤란, 결혼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감능력,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알아보기 위해 Sobel(1982) 검증을 실시하였다.

V. 결과

1. 주요 변인들에서의 성별 비교

본 연구에서 측정된 주요 변인들에 대하여 기혼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평균과 표준편차 및 검증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t 검증 결과, 변인들 중 정서조절곤란($t = -3.61, p < .001$)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점수가 높았으며, 결혼만족도($t = 3.15, p < .01$)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남성보다 여성이 정서조절에 있어 더 어려움을 느끼며,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5>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차이

구 분	남(n=178)	여(n=220)	t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성인애착	애착회피 40.89(10.92)	42.18(13.24)	-1.04
	애착불안 52.51(12.99)	54.50(14.65)	-1.42
공감능력	117.64(10.40)	119.49(9.39)	-1.86
정서조절곤란	85.20(16.79)	91.34(16.91)	-3.61***
결혼만족도	84.93(14.20)	80.04(16.30)	3.15**

** $p < .01$ *** $p < .001$

2.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성인애착(애착회피, 애착불안), 공감능력, 정서조절곤란, 결혼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표 6>과 <표 7>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남성의 경우 애착회피와 애착불안($r=.356, p<.01$)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애착회피는 공감능력($r=-.417, p<.01$), 결혼만족도($r=-.721, p<.01$)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정서조절곤란($r=.305, p<.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애착불안은 공감능력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023, p=n.s$), 정서조절곤란 ($r=.334, p<.01$)과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결혼만족도 ($r=-.455, p<.01$)와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그리고 매개변인인 공감능력과 정서조절곤란은 서로 상관이 없었으며($r=-.080, p=n.s$), 공감능력과 결혼만족도($r=.290, p<.01$)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정서조절곤란과 결혼만족도($r=-.344, p<.01$)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은 상관이 없는 독립 차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회피는 공감능력($r=-.318, p<.01$), 결혼만족도($r=-.689, p<.01$)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조절곤란($r=.164, p<.05$)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애착불안은 공감능력, 결혼만족도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조절곤란($r=.388, p<.01$)과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그리고 매개변인인 공감능력과 정서조절곤란은 서로 상관이 없었으며($r=.039, p=n.s$), 공감능력과 결혼만족도($r=.195, p<.01$)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정서조절곤란과 결혼만족도($r=-.221, p<.01$)는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표 6> 남성의 성인애착(애착회피, 애착불안), 공감능력, 정서조절곤란, 결혼만족도의 상관관계

변인	애착회피	애착불안	공감능력	정서조절 곤란	결혼만족도
애착회피	-				
애착불안	.356**	-			
공감능력	-.417**	.023	-		
정서조절곤란	.305**	.334**	-.080	-	
결혼만족도	-.721**	-.455**	.290**	-.344**	-

** $p < .01$

<표 7> 여성의 성인애착(애착회피, 애착불안), 공감능력, 정서조절곤란, 결혼만족도의 상관관계

변인	애착회피	애착불안	공감능력	정서조절 곤란	결혼만족도
애착회피	-				
애착불안	-.102	-			
공감능력	-.318**	.122	-		
정서조절곤란	.164*	.388**	.039	-	
결혼만족도	-.689**	-.022	.195**	-.221**	-

* $p < .05$ ** $p < .01$

이러한 결과는 남성의 경우,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아지고,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며,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느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여성의 경우에는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아지고,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며,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느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아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1-3이 지지되었고, 1-1과 1-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3.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공감능력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공감능력과 정서조절곤란이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법에 따르면 매개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전체 되는데 첫째,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둘째,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셋째, 매개변인과 종속변인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은 매개변인을 통제한 후에 그 효과(β 값)가 감소해야 한다. 즉, 마지막 단계에서 매개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더 약하게 나타나면 매개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설명할 수 있다. 매개변인의 효과를 통제시 독립변인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다면, 완전매개한다고 하며, 설명력이 줄어들지만 여전히 유의미하다면 부분매개라고 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전제조건을 확인한 결과, 애착불안과 공감능력의 관계는 서로 관련이 없는 것($r=.084$, $p=n.s$)으로 밝혀짐으로써<표 6, 7 참고> 성인애착의 두 차원 중 애착불안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는 검증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는 애착회피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 대해서만 알아보았고,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는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에서 모두 알아보았다.

1)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각 변인의 상관관계<표 6, 7 참고>를 살펴본 결과, 기혼남녀의 애착회피와 공감능력, 애착회피와 결혼만족도, 공감능력과 결혼만족도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어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므로, 애착회피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남성과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먼저 1단계에서 독립변인으로 애착회피를 투입하고, 매개변인으로 가정한 공감능력에 대한 영향력을 설명한 후에,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애착회피를 종속변인인 결혼만족도에 회귀시켰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애착회피와 공감능력 모두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결혼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표 8>과 <표 9>에서와 같이 공감능력은 남녀 모두에게 있어 애착회피와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매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위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있어 첫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애착회피가 공감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두 번째 회귀방정식의 애착회피는 결혼만족도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공감능력이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애착회피가 결혼만족도로 가는 회귀계수가 두 번째 회귀방정식에서보다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므로 공감능력은 애착회피와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매개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이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2-1은 지지되지 못하였다.

<표 8> 남성의 애착회피와 결혼만족도에 대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β	$^4R^2$	F
1 독립→매개	애착회피→공감능력	-.417***	.174	37.089***
2 독립→종속	애착회피→결혼만족도	-.721***	.520	190.716***
3 독립→종속 매개→종속	애착회피→결혼만족도	-.727***	.000	94.873***
	공감능력→결혼만족도	-.013		

*** $p < .001$

<표 9> 여성의 애착회피와 결혼만족도에 대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β	$^4R^2$	F
1 독립→매개	애착회피→공감능력	-.318***	.101	24.471***
2 독립→종속	애착회피→결혼만족도	-.689***	.475	197.263***
3 독립→종속 매개→종속	애착회피→결혼만족도	-.698***	.001	98.433***
	공감능력→결혼만족도	-.027		

*** $p < .001$

2)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먼저 성인애착의 두 차원 중 애착회피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동일한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표 10>과 <표 11>에서 볼 수 있듯이, 남녀의 경우 모두 첫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애착회피는 정서조절곤란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 두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애착회피는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으로 가정한 정서조절곤란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두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애착회피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는 줄어들었다. 그러므로 정서조절곤란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애착회피와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남성의 애착회피와 결혼만족도에 대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β	$^4R^2$	F
1 독립→매개	애착회피→정서조절곤란	.305***	.093	18.110***
2 독립→종속	애착회피→결혼만족도	-.721***	.520	190.716***
3 독립→종속 매개→종속	애착회피→결혼만족도	-.679***	.017	101.489***
	정서조절곤란→결혼만족도	-.137*		

* $p < .05$ *** $p < .001$

<표 11> 여성의 애착회피와 결혼만족도에 대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β	$^4R^2$	F	
1 독립→매개	애착회피→정서조절곤란	.164*	.027	6.054*	
2 독립→종속	애착회피→결혼만족도	-.689***	.475	197.263***	
3	독립→종속	애착회피→결혼만족도	-.671***	.012	103.014***
	매개→종속	정서조절곤란→결혼만족도	-.111*		

* $p < .05$ *** $p < .001$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나, 이 방법으로는 β 값의 감소가 유의미한 감소인지는 검증할 수 없다. 즉,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수준인지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매개효과의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해 Sobel(1982) 검증을 실시하였다. Sobel 검증을 위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Z = \frac{a \times b}{\sqrt{(b^2 \times S_a^2 + a^2 \times S_b^2)}}$$

Sobel 검증에서 분자는 매개효과의 추정치를, 분모는 매개효과의 추정치에 대한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a는 독립변인의 매개변인에 대한 비표준화 계수, b는 매개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비표준화 계수이며, 분모의 S_a 와 S_b 는 추정치 a와 b의 표준오차를 뜻한다. 계산된 Z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MacKinnon, Warsi, & Dwyer, 1995).

검증 결과, 매개모형에서의 Z값이 남성의 경우, $z=-2.171$ ($p<.05$)로 나타나고, 여성의 경우 $z=-1.655$ ($p=.098$)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남성에게 있어서는 정서조절곤란의 부분 매개효과가 유의미하나 여성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와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가 매우 약하다는 것을 뜻한다.

다음으로 애착불안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동일한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여성의 경우, 애착불안이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Baron & Kenny(1986)의 전제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아,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성의 경우만 살펴보았다. <표 12>에서 볼 수 있듯이, 첫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애착불안은 정서조절곤란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 두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애착불안은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으로 가정한 정서조절곤란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두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애착불안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는 줄어들었다. 감소한 설명력이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Sobel(1982) 검증을 실시한 결과, 남성에게 있어 정서조절곤란 ($Z=-2.588$, $p<.05$)의 부분 매개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지금까지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3-1은 남성에게만 해당되고 여성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표 12> 남성의 애착불안과 결혼만족도에 대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β	$^4R^2$	F	
1 독립→매개	애착불안→정서조절곤란	.334***	.112	22.094***	
2 독립→종속	애착불안→결혼만족도	-.455***	.207	45.933***	
3	독립→종속	애착불안→결혼만족도	-.383***	.042	28.948***
	매개→종속	정서조절곤란→결혼만족도	-.216**		

** $p < .01$ *** $p < .001$

VI. 논의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공감능력과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해 보았다. 결혼만족도에 있어 남녀 간의 성차가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혼 남성과 기혼여성 각각에 대해 매개검증을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과 여성이 성인애착, 공감능력, 정서조절곤란, 결혼만족도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인애착의 두 차원인 애착회피와 애착불안 모두 남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회피요인에서 남편이 아내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나, 불안요인에서는 성차가 없었던 김광은(2005)과 이성애(2008)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두 차원에서 모두 남녀 차이를 보이지 않은 신지욱(2006), 한혜영, 현명호(200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성별 간의 차이를 보인 것 중의 하나는 정서조절곤란으로 정서조절의 성별 차이는 Carstensen 등(1995)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는데, 실험실 안의 부부들을 관찰한 결과, 정서적 행동에 있어 아내와 남편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아내는 남편보다 정서적 표현을 더 많이 하였는데, 이야기를 들을 때 분노, 경멸, 슬픔, 기쁨 등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가 더 많이 나타났다. 남편이 아내와 명백한 차이를 보였던 부분은 방어(정서적 억압이나 자기보호)와 감정의 단계적 축소(the affect sequence of deescalation)였는데, 이는 남성이 비정서적 상호작용을 더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해보면, 여성은 남성보다 더 직면적이고, 더 정서적으로 부정적이며 남성은 여성보다 더 방어적이고 갈등을 피해하려고 하기 쉽다는 선행연구들(Christensen & Heavey, 1990; Gottman & Krokoff, 1989; Gottman & Levinson, 1988;

Notarius & Johnson, 1982; Carstensen et al., 1995에서 재인용)과 일치한다. 한편, 결혼만족도는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미 기존의 여러 국내 연구결과들에서 밝혀진 바와 일치한다(이성애, 2008; 한혜영, 현명호, 2006).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가부장적인 가치관이 남아있어, 부부의 역할분담이 여전히 인식 수준으로나 실제 수행 정도로나 남성보다 여성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고, 따라서 남성들이 전반적으로 결혼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김현주, 2003).

둘째, 연구변인인 성인애착(애착회피, 애착불안), 공감능력, 정서조절곤란, 결혼만족도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인애착은 결혼만족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즉, 애착회피나 애착불안이 높은 불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았다. 이것은 국내외의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난 결과이다(김광은, 2005; 김영일, 2006; 이희숙, 박경, 2008; 조현주 등, 1997; Bartholomew & Horowitz, 1991; Cobb et al., 2001; Gallo & Smith, 2001; Lussier et al., 1997).

애착회피가 높은 사람은 애착대상으로부터 반복적으로 거부됨으로써 타인에 대한 부정적 작동모델을 형성한다. 이들은 친밀감이나 가까움에 대한 기대가 낮으며, 필요할 때 배우자가 자신의 욕구를 제공해 줄 유용한 자원이 없다고 생각하여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낮게 된다. 그러므로 지지를 받고자 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결혼생활에 불만과 좌절을 느끼게 된다.

애착불안이 높은 사람은 자기에 대한 부정적 모델을 형성한다. 이들은 애착대상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민감하고 또한 스스로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자기에겐 자원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 과도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느낀다. 따라서 재확신 추구와 같은 과도한 근접성 추구 행동은 배우자의 부정적인 행동을 이끌어 내어 둘 간의 관계를 악화시킨다. 또한 과거의 애착대상에 대해 예

측할 수 없는 것으로 내적 활성화 되어있기 때문에 자기 회의적이고, 타인이 자신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여김으로써 관계에 대한 만족감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Feeney, Noller와 Callan(1994)의 종단적 연구를 통해서도 불안 차원은 부부 의사소통의 부정적인 패턴을 증가시켜 결혼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차이가 드러났는데, 남성은 애착회피와 애착불안 모두 결혼만족도와 부적상관이 있었고, 여성의 경우는 애착회피와 결혼만족도는 부적인 상관이 있었으나, 애착불안과의 상관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것은 남편은 애착불안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지만, 아내는 애착회피가 영향을 준다는 이성애(2008)의 결과와 두 차원 모두 남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었던 한혜영, 현명호(2006)의 결과, 애착회피만 남녀의 결혼만족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Hatch(2008)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태도가 남성과는 차이가 있으며, 여성이 관계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은 적응적으로 생각하며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애착불안은 자신의 결혼만족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는 영향을 주었을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자신은 애착불안이 높을지라도 배우자의 애착유형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한편, 기혼남녀에서 공통적으로 결혼만족도와 애착회피와의 상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착회피가 애착불안보다 결혼생활에 더 불만족한다는 선행연구들(김영일, 2006; 이희숙, 박경, 2008; 조현주 등, 1997)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애착불안이 애착회피보다 결혼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연구들(김광은, 2005; Feeney, 1994, 1999)과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 중의 하나로 애착 척도나 연구 대상의 차이로 인한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하나 추측해 볼 수 있는 원인은 본 연

구의 대상자들이 비교적 높은 결혼만족도를 보고한 것으로 보아,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 등 좀더 다양한 대상으로 표집을 한다면 불안 차원에 대한 연관성을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한편으론 애착회피나 애착불안은 기본적으로 근접성과 보호, 지지추구에 대한 일차적인 애착전략의 실패로 내적 작동모델을 통해 이차적인 애착전략을 사용함에 있어 행동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므로 단순히 애착 차원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내적 작동모델과 관련된 복잡하고 다양한 신념이나 심리적 과정을 간과하고 단순화시킬 위험도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이희숙, 박경, 2008).

셋째, 기혼남녀 모두에게서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많은 선행 연구들(Davis & Oathout, 1987; Perlman, 1999)에서 공감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입증해 왔으나, 본 연구에서 공감능력이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은 것은 예상 밖의 결과이다. 이는 공감능력을 공감적 관심과 정서적 공명 등 비교적 새로운 구성개념을 다차원적으로 구성해 평가했기 때문에 기존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에 발표된 연구 중,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이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매개하지 못했다는 Hatch(2008)의 결과와는 일치한다. 이 연구에서 애착회피와 공감적 관심, 애착불안과 공감적 개인적 고통은 연관성이 있었으나, 남녀 모두 결혼만족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는 경향인 공감적 관점수용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내의 성인애착(애착회피, 애착불안)과 남편의 결혼만족도의 관계, 남편의 애착회피와 아내의 결혼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경로는 남편의 관점수용이 애착회피와 결혼만족도를 매개한 모델뿐이었다. 따라서 공감능력의 하위 차원 중 하나인 관점수용은 자신의 결혼만족도보다는 상대 배우자의 결혼만족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본 연

구에서는 부부가 아닌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배우자의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제한점으로 인해 공감능력의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공감능력은 자신의 결혼만족도보다는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 Long과 Andrews(1990)의 연구에서 개인의 공감능력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설명력은 미미하였고, 오히려 배우자의 공감능력에 대한 지각이 결혼만족도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남편이 지각한 아내의 공감능력이 남편의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 것에 비해, 아내가 지각한 남편의 공감능력이 아내의 결혼만족도를 더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배우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선행연구 중에서, 공감능력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공감적, 적극적 경청기술의 일부 측면은 결혼만족도에 항상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Gottman, 1994; Jacobson & Addis, 1993)도 있어, 추후연구에서 공감능력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반복검증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남성의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부분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에는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정도로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나 성별간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Davila 등(1998)의 연구에서 여성의 경우 애착불안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성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남성의 경우에는 애착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로부터 가능한 거리를 두고자 하며,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자신의 정서에 대해 부주의하고 억제하게 되어 자신의 정서를 적응적으로 잘 다루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점차적으로 부부관계가 소원해지고 결국 서로에 대한 흥미나 만족이 적어지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애착불안 수준이 높

으면 애착체계가 쉽고 강하게 활성화되어 정서반응이 많아지며 재확신 추구와 같은 과도한 근접성 행동으로 배우자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며 결혼만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여성의 경우에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남성과는 다른 요인이 결혼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주었을 수 있으므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원인에 대해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정(2008)의 연구에서는 아내의 경우 자신의 정서조절능력뿐만 아니라 남편의 정서조절능력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인 정서표현에 더욱 민감하다. 따라서 남편이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일 경우 아내는 그 영향을 민감하게 받게 되므로 아내의 입장에서는 부부가 함께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남성의 경우 분노통제의 어려움이 언어폭력, 신체폭력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여성은 정서의 표현은 높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공격성이나 충동성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서조절곤란이 결혼만족도에 끼치는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가나 임상가 그리고 부부문제를 겪고 있는 기혼자에게 개인이 결혼만족도에서 보일 수 있는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기존에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중간 과정을 설명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의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의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공감능력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기혼남성에게 있어 정서조절곤란이 부분적으로 매개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기혼여성에게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은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간의 중간 기체에 있어서도 성차가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상담이나 치료시 성별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을 고

려하여 개입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성인애착을 변화시킴으로써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대신 임상가나 상담가가 정서조절에 관한 훈련 및 치료적 개입을 통해서 내담자의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부상담 및 치료에서 정서조절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이는 효과적으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타인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부치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Snyder, Castellani와 Whisman(2006)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기혼자들로 제한되었고, 학력도 비교적 높은 집단으로 구성되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갖는 대상을 표본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기혼남녀 한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상대방 효과나 부부간 상호작용을 보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Feeney 등(1994)은 배우자의 애착보다는 자신의 애착유형이 결혼만족도와 더욱 관계가 있고, 특히 자신의 불안정 애착에 의해 결혼만족도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결과가 국내에도 적용되는지 추후 부부 쌍을 대상으로 연구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연구변인들을 측정하는 방법상의 문제를 제한점으로 들 수 있다. 성인애착, 공감능력, 정서조절곤란, 결혼만족도 모두 피험자들의 자기보고를 통해 측정되었다. 신뢰도나 타당도가 확인된 도구들이기는 하지만, 피험자들의 반응태도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자기보고식 검사를 보완할 수 있는 관찰법이나 면접법 또는 종단 연구 등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추후연구를 통하여 척도들에 대한 타당성을 좀더 입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양호한 편이었으나, 척도의 일부 하위 요인의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게 나온 점은 제한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연구 변인들의 구성개념을 비교적 타당하게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 학자들간에 합의되지 못한 개념도 있어, 앞으로 척도에 대한 타당화와 개발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간의 매개변인으로 공감능력과 정서조절곤란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외에도 많은 변인들이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다양한 변인들을 찾아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권정혜, 채규만(1999).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I.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123-139.
- 권정혜, 채규만(2000). 부부 적응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2), 207-218.
- 권정혜, 채규만(2002). **결혼만족도 검사-사용자 매뉴얼.** 서울: 학지사.
- 김광은(2005). 성인 애착 유형에 따른 결혼 만족도 및 부부 갈등 대처 전략.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707-734.
- 김광은, 이위갑(2005). 연애관계에서 성인애착 유형 및 요인에 따른 관계 만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233-247.
- 김덕일(1996). **애착유형에 따른 부부간의 사랑유형과 결혼만족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희, 민경환(2007). 중년기 부부의 애착과 결혼만족: 애착유형과 결혼만족의 매개요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7(1), 213-233.
- 김영일(2006). **성인애착과 결혼만족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조절 효과.**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2008). **정서조절, 의사소통 그리고 결혼만족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주(2003). 부부의 경제 및 가사역할의 수행과 인식 수준에 따른 결혼만족도.
가족과문화, 15(1), 97-130.
- 김현주(2009). **공감능력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용서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진(2005). 결혼 초기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공정주

- 의 심리치료 접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877-906.
- 박남숙(2005). 부부상담에서 집단상담의 치료적 활용: 문헌 고찰과 사례연구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1097-1118.
- 박성희(1994). **공감, 공감적 이해**. 서울: 원미사.
- 박성희(2004). **공감학, 어제와 오늘**. 서울: 학지사.
- 박영화, 고재홍(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65-83.
- 박의순(1997). **애착과정으로 본 한국부부의 사랑: 대 부모애착, 부부애착과 부부사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7년도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권리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09). **2008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송은하(2004). **부부갈등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인지-맥락적 평가와 정서적 안정성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경일(1993). 공감개념의 탐색: 다학문적 접근.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연구보**, 28(5), 105-131.
- 신경일(1994a). **상담자교육을 위한 공감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경일(1994b).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요소 및 표현적 요소간의 관계.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연구보**, 29(8), 1-37.
- 신지옥(2006). **애착, 정서, 그리고 대인관계 유능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자경(2008). **성인의 애착과 갈등해결전략 간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영숙(2008). **부부갈등과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에서 공감과 용서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윤자, 유영주(1994).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205-218.
- 이경성(2001). 이혼의도, 시도 및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2), 97-119.
- 이귀선(2002). **성인애착유형에 따른 정서조절 양식과 효과성의 차이**.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애(2008). **성인애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 추구, 자존감의 매개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영, 권석만(2006). 정서조절과 정신병리의 관계: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3), 461-493.
- 이훈구(2001).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서울: 이야기.
- 이희경(2007). 중학생의 희망과 공감 하위집단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751-766.
- 이희숙, 박경(2008). 성인애착과 결혼만족 간의 관계: 보살핌과 성적 친밀감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3), 671-689.
- 장휘숙, 이영주(2007). 애착과 의사소통 능력 및 결혼관계 만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4), 17-32.
- 정현숙, 유계숙(2001). **가족관계**. 서울: 학지사.
- 조용래(2007). 정서조절곤란의 평가: 한국판 척도의 심리측정적 속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4), 1015-1038.
- 조현주, 현명호, 정희연, 박인준(1997). 성인 애착유형이 부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임상심리학회 하계 학술 발표논문**. 180-184.

- 통계청(2009). 2008년 이혼통계 결과. <http://www.nso.go.kr>
- 한혜영, 현명호(2006). 성인애착과 결혼만족 -부부 조망수용과 갈등해결 효
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4), 935-952.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Erlbaum Associates. Hillsdale, NJ: Erlbaum.
- Ainsworth, M. D. S. (1989). Attachment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5-716.
- Barnett, M. A. (1987). Empathy and Related Response in Child, In N.
Eisenberg & J. Strayer(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
(pp. 146-162).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erman, W. H., & Sperling, M. B. (1994).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adult attachment. In M. B. Sperling & W. H. Berman(Eds.),
Attachment in adult (pp.3-28). New York: Guilford Press.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I*.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II*.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Basic Books.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In Jeffrey A. Simpson & W. Steven Rholes(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 46-76). New York: Guilford Press.
- Britton, P. C., & Fuendeling, J. M. (2005). The relations among varieties of adult attachment and the components of empathy.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5*, 519-530.
- Cahn, D. (1990). Confrontation behaviors, perceived understanding and relationship growth. In D. Cahn (Ed.), *Intimates in conflict*.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Carstensen, L. L., Gottman, J. M., & Levenson, R. W. (1995). Emotional behavior in long-term marriage. *Psychology and Aging, 10*(1), 140-149.
- Cassidy, J. (1994). Emotion Regulation: Influence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 (pp. 228-249).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2/3.
- Cobb, R. J., Davila, J., & Bradbury, T. N. (2001). Attachment security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role of positive perceptions and social suppor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Bulletin, 27*(90), 1131-1143.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Cummings, E. M., & Davies, P. T.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Davila, J., Bradbury, T. N., & Fincham, F. (1998). Negative affectivity as a mediator of the association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Personal Relationships*, *5*, 467-484.
-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
- Davis, M. H.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13-126.
- Davis, M. H., & Oathout, H. A. (1987). Maintenance of satisfaction in romantic relationships: Empathy and relational compet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397-410.
- Eisenberg, N., & Strayer, J. (1987). *Empathy and its development*.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sser, U., & Schneider, I. (1990). Client-Centered partnership therapy as relationship therapy. In G. Lietaer, J. Rombauts, & R. Balen(Eds.), *Client-centered and experiential psychotherapy in the nineties* (pp. 839-846). Belgium: Leuven University Press.
- Feeney, J. A. (1994). Attachment style, communication patterns and satisfaction across the life cycle of marriage. *Personal Relationships*, *1*, 333-348.

- Feeney, J. A. (1999). Adult attachment, emotional control, and marital satisfaction. *Personal Relationships, 6*, 169-185.
- Feeney, J. A., Noller, P. & Callan, V. J. (1994). Attachment style, communication and satisfaction in the early years of marriage. In K. Bartholomew & D. Perlman (Ed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Vol. 5. Attachment process in adulthood* (pp. 269-308). London: Jessica-Kingsley.
- Feshbach, N. D. (1978). Studies of empathic behavior in children, In B. A. Maher(Ed.), *Progress in experimental personality research*(Vol.8), New York Academic Press.
- Feshbach, N. D. (1987). Parental empathy and child adjustment/maladjustment, In N. Eisenberg, & J. Strayer(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 (pp. 271-29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eshbach, N. D., & Feshbach, S. (1982). Empathy training and regulation of aggression. *Academic Psychology Bulletin. 4*, 399-413.
- Fincham, F. D., & Beach, S. R. H. (2002). Forgiveness in marriage: Implications for psychological aggression and constructive communication. *Personal Relationships, 9*(3), 239-251.
- Gallo, L. C., & Smith, T. W. (2001). Attachment style in marriage: Adjustment and responses to interac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8*(2), 263-289.
- Gottman, J. M. (1994). *What predicts divorce?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processes and marital outcomes*. Hillsdale, New Jersey: Erlbaum.

- Gottman, J. M. (1998). Psychology and the study of marital process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9*, 169-197.
- Gottman, J. M. (1999). *The marriage clinic: A scientifically-based marital therapy*. New York: Norton.
- Gottman, J. M., & Levenson, R. W. (2000). The timing of divorce: Predicting when a couple will divorce over a 14-year peri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737-745.
- Gottman, J. M., & Notarius, C. I. (2002). Marital research in the 20th century and a research agenda for 21st century. *Family Process, 41*(2), 159-197.
- Gratz, K. L., & Roemer, L. (2004).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Development, Factor Structure,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6*, 41-54.
- Greenberg, L. S., Ford, C. L., Alden, L. S., Johnson, S. M. (1993). In-session change in emotionally focused 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78-84.
- Gross, J. J. (1998). The emerging field of emotion regulation: An integrative review.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3), 271-299.
- Hatch, D. L. (2008). Factors That Influence The Association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Utah State University. Doctor of Philosophy (Psychology).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 Psychology*, 52(3), 511-524.
- Hazan, C., & Shaver, P. (1994). Attachment as an organizational framework for research on close relationships. *Psychological Inquiry*, 5(1), 1-22.
- Hoffman, M. L. (1982). Development of prosocial motivation: Empathy and guilt, In N. Eisenberg(Ed.),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NY Academic press.
- Iannotti, R. J. (1978). Effect of role-taking experiences on role-taking, empathy, altruism, and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4, 119-124.
- Ickes, William. (2003). 권석만 역 (2008). *Everyday Mind Reading: Understanding What Other People Think and Feel. 마음읽기*. 파주: 푸른숲.
- Jacobson, N. S., & Addis, M. E. (1993). Research on couples and couple therapy: What do we know? Where are we go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85-93.
- Joireman, J. A., Needham, T. L., & Cummings, A. (2001). Relationships between dimensions of attachment and empathy. *North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4, 63-80.
- Kalat, J. W., & Shiota, M. N. (2005). 민경환, 이옥경, 김지현, 김민희, 김수안 역 (2007). *Emotion. 정서심리학*. 서울: (주)시그마프레스.
- Karney, B. R., & Bradbury, T. N. (1995). The longitudinal course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A review of theory, method,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18, 3-34.
- Kirkpatrick, L. A., & Davis, K. E. (1994). Attachment styles, gender, and relationship stability: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3), 502-512.
- Kobak, R. R. & Hazan, C. (1991). Attachment marriage: Effects of security and accuracy of working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861-869.
- Kobak, R. 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1), 135-146.
- Long, E. R., & Andrews, C. D. (1990). Perspective taking as a predictor of marital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26-131.
- Lussier, Y., Sabourin, S., & Turgeon, C.(1997). Coping strategies as moder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d marital adjustment.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4, 777-791.
- MacKinnon, D. P., Warsi, G., & Dwyer, J. H. (1995). A simulation study of mediated effect measure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0(1), 41-62.
-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66-104.
- Mallinckrodt, B. (2000). Attachment, social competencies, social support and interpersonal process in psychotherapy. *Psychotherapy Research*, 10, 239-266.
- Mehrabian, A., & Epstein, N. (1972). A measure of emotional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40, 525-543.

- Meyers, S. A. & Landsberger, S. A. (2002). Direct and indirect pathways between adult attachment style and marital satisfaction. *Personal relationships, 9*, 159-172.
- Mikulincer, M., Florian, V., Cowan, P. A., & Cowan, C. P. (2002). Attachment security in couple relationships: A systematic model and its implications for family dynamics. Special issue on Attachment and Family Relationship. *Family Process, 41*, 405-434.
- Mikulincer, M., Gillath, O., Halevy, V., Avihou, N., Avidan, S., & Eshkoli, N. (2001). Attachment theory and reactions to others' needs: Evidence that activation of the sense of attachment security promotes empathic respon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1205-1224.
- Mikulincer, M., Shaver, P. R., Gillath, O., & Nitzberg, R. A. (2005). Attachment, caregiving, and altruism: Boosting attachment security increases compassion and hel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5), 817-839.
- Mikulincer, M., Shaver, P. R., & Pereg, D. (2003). Attachment theory and affect regulation: The dynamics, development, and cognitive consequences of attachment-related strategies. *Motivation and emotion, 27*(2), 77-102.
- Miller, L., McDonough, C., Rosenblum, L., & Sameroff, J. (2002). Emotion regulation in context: Situational effects on infant and caregiver behavior. *Infancy, 3*, 403-431.
- Noller, P., & Ruzzene, M. (1991). Communication in marriage: The influence of affect and cognition. In G. J. O. Fletcher & F.

- Fincham (Eds.), *Cognition in close relationships*. Hillsdale, NJ: Erlbaum.
- Parkes, C. M. (1972). *Bereavement*.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s Press.
- Perlman, D. G. (1999). The role of empathy and perspective taking in marital attribution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personal: Section B: The Science and Engineering*, 60, 1311.
- Pietromonaco, P. R., Greenwood, D., & Barrett, L. F. (2004). Conflict in Adult Close Relationships: An Attachment Perspective. In W. Steven Rholes & Jeffrey A. Simpson(Eds.), *Adult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implications* (pp. 267-299). New York: Guilford Press.
- Posner, D. L. (2000). Relationship among attachmnet style, empathy, object representations, and alexithymia.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Section B: The Sciences and Engineering*, 60, 5231.
- Rogers, C. R. (1961). *On becoming a perso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Rowan, D. G., Compton, W. C., & Rust, J. O. (1995). Self-actualization and empathy as predictors of marital satisfaction. *Psychological Reports*, 77, 1011-1016.
- Schutte, N. S., Malouff, J. M., & Bobik, C. (2001).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1, 523-536.
- Searle, B. & Meara, N. M. (1999). Affective Dimensions of Attachment Styles: Exploring Self-Reported Attachment Style,

- Gender, and Emotional Experience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2), 147-158.
- Seligman, M. E. P. (2002). Positive psychology, positive prevention and positive therapy.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3-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haver, P. R., & Hazan, C. (1988). A biased overview of the study of lov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5, 473-501.
- Shaver, P. R., & Mikulincer, M. (2003). Attachment, compassion, and altruism.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Compassionate Love, Normal, IL.
- Simpson, J. A., Ickes, W., & Grich, J. (1999). When accuracy hurts: Reactions of anxious-uncertain individuals to a relationship-threatening sit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754-769.
- Snyder, C. R., & Lopez, S. J. (2002).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nyder, D. K. (1979). Measuring dyadic adjustment: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15-28.
- Snyder, D. L., Castellani, A. M., & Whisman, M. A. (2006).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In Couple Therapy*. *Annu. Rev. Psychol*, 57(1), 317-344.
- Snyder, C. R., & Lopez, S. J. (2006). *Positive psychology: The scientific and practical exploration of human strength*. Thousand Oaks, CA: Sage.

- Sobel, M. E. (1982). Asymptotic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290-312), San Francisco: Jossey-Bass.
- Thompson, R. A. (1994). Emotion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In N. A. Fox (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 (pp. 25-52).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2/3*.
- Underwood, B., & Moore, B. (1982). Perspective-taking and altruism, *Psychological Bulletin, 91*, 143-173.
- Weiss, R. S. (1975). *Marital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 The Mediating Effects of Empathy and Emotion Dysregulation

Hyun, Mi Na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dysregulation and capacity for empath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and attempted to verify the effect. For the paper, 398 married men and women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s drawn using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Scales (ECRS),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MSI), Empathic Ability Scale, and 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Scale (DERS). The resul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orrelation analysis of each factor showed that both attachment anxiety and attachment avoidance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marital satisfaction for married

men, while such correlation was observed in attachment avoidance only for married women. The empathic ability and the emotion-dysregulation were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and a negative correlation respectively with marital satisfaction.

Second, the result of *t*-test to find ou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showed that women experienced more emotion-dysregulation than men, and men experienced higher marital satisfaction than women.

Third,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look into the mediating effect of empathic a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and it was found that the effec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ourth, another regression analysis on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dys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showed that the effect exists for married men, but not for married women.

Last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as discussed and recommendations for follow-up research was suggested.

Keywords: Adult Attachment, Marital Satisfaction, Empathy, Emotion-Dysregulation

부 록

부록 1. 성인애착 척도

부록 2. 공감능력 척도

부록 3. 정서조절곤란 척도

부록 4. 결혼만족도 척도

1. 성인애착 척도

아래의 진술문들을 잘 읽고 귀하와 가장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 번호에 ✓표를 해주십시오. 정답이 따로 없으므로 자신에 관해 솔직하게 답해 주시고,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말고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상당히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중간 이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마음 속 깊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배우자에게 드러내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버림 받을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배우자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아주 편안한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우리 관계에 대해 많이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내 배우자가 나에게 가까이 오기 시작할 때 나는 바로 움츠러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배우자가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큼 나를 생각하지 않을까봐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나는 배우자가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면 불편해 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는 배우자를 잃는 것에 대해 상당히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나는 배우자에게 마음을 여는 게 편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나는 종종 배우자의 나에 대한 느낌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느낌만큼 강렬하기를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나는 배우자에게 다가서고 싶지만, 언제나 물러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나는 종종 배우자와 완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하지만 이런 생각은 때때로 그 사람을 쫓아버리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나는 배우자가 너무 가까워 질 때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나는 홀로 있는 것이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나는 나의 개인적인 생각과 느낌을 배우자와 나누는 것이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가까워지려는 나의 열망은 오히려 사람들을 멀리하게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나는 배우자와 너무 가깝게 되는 것을 피하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나는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나는 상대적으로 배우자와 가까워지는 것이 쉽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때때로 나는 배우자에게 더 많은 느낌을 표현하도록 하고 우리 관계에 더 많이 신경쓰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1. 나는 배우자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내 자신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2. 나는 버림받는 것에 대해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3. 나는 배우자에게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4. 배우자가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5. 나는 배우자에게 모든 것에 대해 바로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6. 내 배우자는 나만큼 가까워지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7. 나는 보통 내 문제와 걱정거리에 대해 배우자와 의논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8. 내가 우리 관계에서 영향을 주지 못할 때, 나는 약간 불안하고 불안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9. 나는 배우자에게 의지할 때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0. 나는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만큼 가까이 없을 때 실망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1. 나는 주저없이 배우자에게 위안과 충고와 도움을 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2. 나는 내가 필요할 때 배우자가 없으면 낙담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3. 어려울 때 배우자에게 의지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4. 배우자가 나에게 동의하지 않을 때 나는 실제 내 자신이 잘못됐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5. 위안과 안심을 포함한 많은 일에서 나는 배우자에게 의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6. 나는 배우자가 나를 떼어놓고 시간을 보낼 때 분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공감능력 척도

귀하가 평소에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평소에 느끼고 있는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에 솔직하게 ✓표를 해주십시오.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불쌍하게 보이는 불행한 사람들 때문에 괴롭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인간이 행복해서 운다는 것이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는 것을 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사람들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만난 많은 외국인들은 대체로 냉정하고 무감각하게 보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사람들이 선물을 여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6. 고독한 사람들은 불친절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소설 속 특정인물의 감정에 깊이 몰입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어떤 사람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을 보면 정말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다른 사람들의 웃음을 따라 웃는 일이 적다.	①	②	③	④	⑤
10. 가끔씩 나는 영화관에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웃고 울고 하는 것을 보면서 놀라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주위의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있으면 나는 내 일이 계속 잘 되어간다고 느낄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12. 사람들이 그렇게 괴로워하는 이유를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고통받고 있는 동물을 보면 매우 마음이 아프다.	①	②	③	④	⑤
14. 책이나 영화에 빠지는 것은 조금 어리석은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힘없는 노인들을 보면 내 마음이 아프다.	①	②	③	④	⑤
16. 다른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면 나는 동정심보다 화가 나서 참기 어려워진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영화를 볼 때 그 영화에 깊이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나보다 불행한 사람을 보면 연민의 정과 함께 걱정하는 마음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가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비상시에 걱정이 되고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결정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알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어떤 사람이 이용당하는 것을 보면 그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매우 정서적인 부담이 큰 상황에 처하면 무력감에 빠지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나의 친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그의 입장에 서면 사물들이 어떻게 보일까 생각해보려고 노력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다친 사람들을 보아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①	②	③	④	⑤
26. 다른 사람들의 불행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지는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7. 긴장된 상황은 나를 두렵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어떤 사람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을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불쌍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가끔 있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모든 질문에는 두 가지 면이 있으며 그 두 가지 면을 모두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급할 때 통제력을 상실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1.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 화가 났을 때 나는 잠시 동안이라도 그의 입장에 서보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아주 급히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33. 어떤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나는 만약 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는 생각을 해 보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정서조절곤란 척도

다음의 문항들을 잘 읽고 귀하와 가장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 번호에 ✓표를 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감정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주의를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감정에 압도되고 감정을 통제하기 힘들다고 여긴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감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안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느끼고 있는 것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느끼는 감정(방식)에 대해 혼란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쁠 때, 내 감정을 알아차린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것에 대해 당황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일을 끝마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자제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오랫동안 내가 그런 상태로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결국에는 내가 아주 우울하게 느낄 것이라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다른 일들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자제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더라도, 여전히 일은 끝마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것에 대해 부끄럽게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궁극적으로 기분이 더 좋아지는 방법을 내가 찾아낼 수 있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가 나약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더라도, 내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집중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행동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기분을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나 자신에게 짜증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나 자신에 대해 기분이 매우 나빠지기 시작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 상태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다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생각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가 진정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34.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기분이 더 좋아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①	②	③	④	⑤
35.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감정들에 의해 압도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4. 결혼만족도 척도

다음은 귀하의 현재 결혼 생활 전반에 관해 묻는 문항들입니다. 아래의 진술문들을 잘 읽고 귀하와 가장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 번호에 ✓표를 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의 결혼생활이 꽤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결혼생활이 지금보다 더 좋았다고 느낀 적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는 다른 부부들처럼 잘 지내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때때로 나는 배우자를 몹시 떠나고 싶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결혼생활에서 충족되지 못한 중요한 욕구들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우리의 결혼이 이혼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내 결혼은 여러 가지 점에서 실망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결혼생활에는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결혼생활의 미래는 너무 불확실해서 중요한 계획을 세울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에도 종종 외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는 매우 자주 말다툼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만일 내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더 행복하게 느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때때로 내 결혼에 대해서 꽤 낙심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부부보다 더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결혼생활에서 거의 불행함을 모르고 지내왔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 생각에 우리 결혼은 성공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 결혼생활은 나쁜 점보다 좋은 점들이 훨씬 많다.	①	②	③	④	⑤
18. 배우자와 나는 별거하거나 이혼할 뻔한 적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9. 우리 결혼생활이 내가 아는 사람들의 결혼생활만큼 즐겁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자주 배우자에게 함께 부부 상담을 받아보자고 권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내 결혼생활의 많은 부분에 대해 만족스럽게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2. 내 결혼은 매우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